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① 마지막 고비 넘어...황금 물결 일렁인 사자평에서 위법망구를 새기며

☞ 박봉영 이경민 기자 사진=김형주 기자 | Ⓞ 승인 2021.10.17 16:04 | 📄 호수 3688 | 💬 댓글 0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역새 밭 사이로 가사를 수한 순례단이 지나고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인 10월17일, 표충사 설법전 마당에서 천막 텐트에 의지해 하룻밤을 묵은 순례단이 오전5시 여명이 트기 전 산으로 향했다. 표충사 우화루 옆 흐르는 남계천을 따라 오르면서 이번 순례 최대 난코스인 사자평 가는 길이 열린다. 고도 989m에 달하는 역새평원을 오르기 전, 하룻밤 새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기습추위에 꽁꽁 언 몸을 녹여내는 순례단 주위로 간장이 감돌았다.

곳곳에 얼음 꽃이 핀 산길과 가파른 나무계단을 한참이나 번갈아 오르던 순례단 앞에 어느새 사자평(獅子坪)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내 최대 고산 습지인 사자평은 가지산과 사자봉 사이 고원지대 펼쳐진 광활한 평원으로 광평추파(廣坪秋波·광활한 평원의 가을 파도)라 하여 가지산이 있는 재약산 8경 중 첫 손에 꼽히는 곳이다.

표충사에서 천황산 서남쪽을 바라보면 험한 바위로 이뤄진 봉우리 생김이 마치 사자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천황산 사자봉’이라 했고 그 아래 평원에 나 있는 역새는 마치 사자의 갈기와 같다 해서 ‘사자평’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사자평은 사명대사와도 인연이 깊다. 조선시대 임란의 공신인 사명대사는 나라가 전란에 빠져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병과 승군을 이끌고 역새 밭이 우거진 사자평으로 향했다. 은빛 물결 일렁이는 이 광활한 평원에서 사명대사는 의병과 승군을 훈련시키며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켰다.

법화경 화금정판
석각 및 판각대작불사

서각(판각)	원문	십만원/1자
108자(한판)		오백만원/1판
사과 가족의 천도원문(한판)		십오백만원
전각(석각)	팔상도(한판)	백만원/1판
	팔상도/전도	일천만원/1판

팔공총림 동화사 053-980-7973

불교신문TV

더보기 >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이들의 정체는? Clas...

포토뉴스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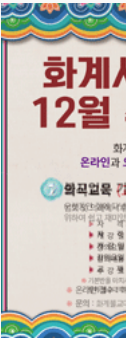
불교신문TV

짜장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

많이 본 기사

- 1 [삼보사찰 천리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삼보사찰 천리
- 6 [삼보사찰 천리
- 7 [삼보사찰 천리
- 8 [삼보사찰 천리
- 9 "불교계 매도?
- 10 관중 없는 비디



최신뉴스

- 참선지도사 명상!
- 조계종 문화부장 성
- 제2회 운강명상학술
- 병원진료에 함께 갈
- 파라미터 전통등 공
- 짜장에 진심인 사람
- 어른들의 서울사
- 주인이 주도하는 '동
- 감천다문화가족지원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이 서린 이 드넓은 평원을 순례단은 두 발로 직접 걸었다. 숨처럼 하얀 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줄기와 잎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가을 파도 속으로 붉은색 가사를 수한 스님 뒤 순례 가사를 덧입은 재가자들이 따라왔다. 300여 명이 한 줄 행렬을 이뤄 역사 물결 사이를 지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다.



출발 전 표충사 대광전에 예불 하는 참가자들.



사자평을 오르는 순례단.

섹션별 최신기사

- 종단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 국회 앞 1인 ...
- 전국 해인총림 해인사, 개산 1219주년 역대조...
- 사회&국제 불교활동가지원기금 '제18회 불교...
- 인물 "부처님 가피로 30년 포교 가능했죠"
- 대중공사 [포교현장에서] 청년회의 또 다른 즐...
- 수행&신행 참선지도사 명상지도사 자격시험 ...
- 문화 조선왕조실록이 돌아올 때까지...
- 기획&연재 관중 없는 비대면이지만 생명나눔 ...
- 출판&문학 지율스님 태아영가 천도재 30년 ...
- 학술&문화재 제2회 운강명상학술상 이영진...
- 복지&상담 병원진료에 함께 갈 '시니어 돌봄...

대한불교조지
불교전문사

www.

02/2

법공양 (기획PR)





억새밭에서 아침 공양을 하는 순례단.



배내골로 내려가는 구간. 이날 일일 참가자만 200여 명이 몰렸다.



강을 건너는 순례단.

고된 여정을 걷는 순례단을 위해 ‘상월선원 만행결사’ 천막결사에 동참했던 9명 스님은 음성 공양을 하며 지천에 환상을 만들어냈다. 잣아든 바람 속 역새 사이로 소리꾼 장사익의 구성진 가락이, 진각스님과 제민스님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영남 알프스로 지칭되는 재약산 능선을 타고 울리는 노랫소리에 어느새 순례단 발걸음에도 힘이 실렸다.

드넓은 사자평 고원을 지나 능선 따라 한참을 걸어 배내골로 접어들니 한두사람이 지날 만한 좁은 등산로가 나왔다. 이른 새벽 추위와 싸우며 6시간의 행선을 이어온 순례단이지만 만면에 웃음 가득 발을 딛었다. 선지스님은 “수백년 전 사명대사가 걸었던 이 길을 순례 도반들과 함께 걸으니 가슴이 벅차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사부대중의 원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한국불교사에 다시는 없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뤄지기 힘들었을 일”이라고 했다.

순례단을 위해 진각스님은 이날 차가 오르지 못하는 사자평까지 직접 지게를 지고 간식을 날랐다. 새벽 추위에 떨며 험난한 산길을 올랐을 순례단을 위해 표충사 신도들과 함께 준비한 따뜻한 찜빵을 지게 위에 올리고 평원을 올랐다. 진각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하며 늘 받기만 해 미안했는데 순례 대중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뿌듯하다”며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자비순례와 천리순례로 이어지면서 감동을 전하는 현장을 보니 감정이 남다르다”고 했다.

사명대사는 사자평을 넘나 들며 늘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 지리산, 팔공산, 태백산, 금강산 등 전국을 떠돌며 수행을 하면서도 위법망구의 정신을 잊지 않고 중생을 구제했다. 진리를 위하고 정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육신의 고달픔은 생각지 않는 것. 천리순례 시작 17일, 누적 이동 거리 400km. 삼보에 귀의하며 “이웃의 아픔을 사르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천리순례단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 불보종찰 통도사 입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5시 표충사를 출발한 순례단이 일출과 동시에 사자평 역새발에 다다랐다. 뒤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고 있다.



아침햇살을 받으며 역새발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스님들.



사자평을 지나 점심공양장소인 배내고개 휴게소로 향하는 순례단. 뒤로 영남 알프스가 펼쳐져 있다.



사자평 역사발에 새벽에 도착한 회주 자승스님 눈썹에 기온차로 인해 얼음이 맺혀있다.



이른 아침 맹추위 속에서도 장사익씨가 열창을 하고 있다.



아침햇살을 받은 억새밭이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추위 속에 따듯한 찐빵을 받은 순례단 1조가 기념촬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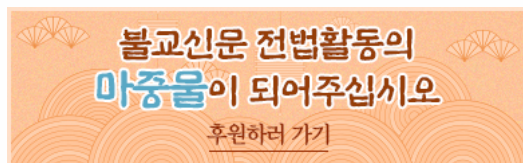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이 직접 지계를 지고 찌뽕을 날렸다.

울주=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이경민 기자 사진=김형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 “우리 모두가 부처…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 긴장 속 호국성지 도…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 달라지고 있는 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발톱이 들리고 물집…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 누적 295km...순례…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 비바람 불어도 꽃길…
- ㉠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해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 견디고 참고 기다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 자승스님 실상사 참…
- ㉠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의 꽃은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 길 위 수장의 어깨...함…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 ‘적극적 포교 공세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감 하나로 밤낮 없이 알…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 “부부 아니고 50년…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 “딸과 평생 한번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수와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 순례단 찾은 총무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자...응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 청매선사 깨달음 연…
- ㉠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자승…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 사찰 참배하며...무...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 함께 걷는 길, 자라...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 삼보의 의미를 다시 ...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 대장정 회향...금강계...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광고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